

실사단-광주지역 대학생·스포츠 스타 간담회

“광주의 꿈과 열정 기억해 달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의 주역인 광주지역의 대학생들과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스타들이 2013 U대회 광주 유치에 대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실사단과 광주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터키 집행위원인 케말 터머 위원과 대학생들이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기원하며 건배하고 있다.

△대학생 대표-실사단 간담회=광주지역 대학생 대표 50여명은 4일 광주 상무지구 센트럴관광호텔에서 실사단과 간담회를 겸한 환영 오찬을 갖고 광주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전했다.

김영진 전남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촛불처럼 산화했던 대학생 선배들의 의로운 뜻을 잇는 광주의 13만 대학생들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면서 “꿈과 열정의 도시 광주가 U대회 유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U대회 유치 도와달라”...여홍철·김수녕·이은철 등 지원 사격

체조계의 영웅인 광주출신 여홍철, 양궁의 국민스타 김수녕, 사격의 대표주자 이은철 등 3명은 3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실사단과 20여분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1991년 영국 세팰드, 1993년 미국 버팔로 하계U대회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따낸 유니버시아드의 스타 여홍철과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히사토 이가라시 집행위원간 한-일 체조스타들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다.

여씨는 “그동안 여러 세계대회에서 히사토 위원의 얼굴을 봐왔고 같은 체조인을 만나니 가족같은 기분이 든다”며 “광주는 안정적이고 음식 맛이 뛰어나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바르셀로나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이은철과 88서울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김수녕도 “스포츠를 사

랑하는 광주 시민들의 열정만으로도 광주는 이미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준비된 도시”라며 광주의 인프라와 여건을 집중 홍보했다.

간담회에서 터키의 케말 터머 집행위원은 “광주 곳곳을 둘러보며 시민들의 상상력에는 끝이 없다는 점을 느꼈다. 광주의 의지와 열정을 보면 U대회는 물론 올림픽까지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스페인 비고가 프레젠테이션과 현지실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실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 이희범 위원장

“카잔·비고와 차별화 승부수 비장의 프레젠테이션 준비”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지 결정을 확정짓는 그 날까지 숨가쁜 전쟁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실사단의 광주 실사가 진행중인 4일 이희범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장은 “FISU 현지 실사(4월17~21일)를 끝마친 스페인 비고가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스페인 비고가 프레젠테이션과 현지실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실



로 선전하고 있는 만큼 유치 전략을 다소 수정하는 내용도 고려될 것입니다.”

U대회 유치전이 광주, 카잔,비고 3개 도시 경쟁체제가기 때문에 치밀한 득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는 유력 집행위원들의 표심이 승부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이미 대륙별 집행위원들의 지지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표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는 5일 실사가

광주·카잔의 2파전

사위원들로부터 들었다”며 “결국 대회 유치를 놓고 카잔과 광주의 2파전이 될 것이지만 비고도 만만찮은 경쟁도시가 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실사 이틀 동안 시민 환영단이 보여준 뜨거운 실사 열기에 실사위원들이 감동하는 등 실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회 유치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실사 열기가 대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표가 승부 결정

광주는 대로 유치위원들이 맞춤형 전략을 수립, 집행위원들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 대륙별 집행위원들을 유치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회의는 개최지를 표결로 결정하는 FISU 집행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31일까지 20여일 동안의 유치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전략회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카잔은 물론 스페인이 의외

■ 프레젠테이션팀 면면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4차례 프레젠테이션(PT)에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스포츠 전문가들이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는 U대회가 대학생들의 축제라는 점을 감안해 대학 국내외 스포츠계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대학총장과 스포츠 학자·행정가들을 PT에 참석토록 요청, 광주의 대회 개최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PT를 이끌고 있는 김종량 한양대 총장은 지난 1984년 대한야구협회 부회장을 맡은 이래 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대한대학스

포츠위원회(KUSB) 위원장, 국제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스포츠계의 거물급 인사다.

그는 1994년 '9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95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장을 지내며 FISU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FISU 분과위원으로 20여년 동안 국제 체육계에 활동해오는 등 국제적인 '마당발'로 알려져 있다.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주(조선대 체육학과) 교수는 스포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자다.

김 교수는 대한체육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에 '2003 대구 하계 U대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FISU의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다.

또 김영환(연세대 사회체육학) 교수는 KUSB 위원으로, 한국체육학회 회장,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위원

장을 지낸 스포츠 학자다.

레슬링 국가대표팀 전임코치 출신으로 아시아대학교스포츠연맹 회장을 역임한 뒤 한국우드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구(한국체육대학) 교수도 PT에 참석,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국제 스포츠무대 활동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각 국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희범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장은 “광주시의 열정과 시민들의 열정만으로도 광주는 이미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준비된 도시”라며 광주의 인프라와 여건을 집중 홍보했다.

광주, FISU 실사단에 명예시민증

광주시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 후보 도시 실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실사위원 6명에게 4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국제 스포츠무대 활동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각 국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희범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장은 “광주시의 열정과 시민들의 열정만으로도 광주는 이미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준비된 도시”라며 광주의 인프라와 여건을 집중 홍보했다.

말 터머(터키),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집행위원 등 6명에게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시는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증 추대 조례’에 따라 전날 오후 열린 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를 결정했다.

시는 앞서 3월 광주를 방문한 조지 길러안 FISU 집행위원장에게 스포츠 실사단장(스웨덴)과 말로베트 라레트(남아공), 스타브로스 두비스(그리스), 시니샤 야스니츠(세르비아), 케

하는 세계 대학생들의 화합·우정·평화 등의 이념이 민주·평화·인권의 도시인 광주의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142만 광주시민의 유적열망과 감응을 담아 명예시민증을 드린다”며 “오는 31일 집행위원회의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실사단이 광주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광주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사는 총 4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이번 실사단원 6명을 포함한 38명이 외국인이다.

이희범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장은 “광주시의 열정과 시민들의 열정만으로도 광주는 이미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준비된 도시”라며 광주의 인프라와 여건을 집중 홍보했다.

생활안내 광고.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한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무등고시학원. =지금 벌써 많은 수험생들은 09년도 시험대비에 몰입하고 있다!!=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개강 5월1일(주·이반모집)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합격률 전국 1위 =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대적 학습시설, 첨단학습보조 시스템